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城北區 安岩洞
 5街 134-58
 電 話：923-4372

石材產業法 制定을 反對한다

山主意思에 反하는 採石權 設定은 私有財產權 侵害

— 必要하면 山林法을 補完하여야 —

動力資源部에서는 山林内에 採石權 設定을 認定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새로운 石材產業法을 制定하고자 法案을 마련하고 動力資源部 공고 제 86-25(1986.9.26)로 同 法案에 대한 意見을 묻고 있는바,

本 協會에서는 山主와 採石權 設定者간의 相關關係로 보아 山主意思에 反하는 採石權 設定은 山林毀損에 앞서 山主私有 財產權 侵害의 우려가 있다고 判斷, 이를 저지하기로 하고 必要하면 현행 山林法을 補完改正하여 國土保全과 資源開發의 調和있는 政策이 떠지도록 動力資源部 및 民政黨 政策委長 앞으로 建議하였는바 그 内容은 다음과 같다.

石材產業法(案) 制定에 대한 意見書

1. 의 견 : 本 協會는 動力資源部 공고 제 86-25 ('86.9.26)에 따른 石材產業法 制定을 반대합니다.

2. 이 유

가. 私有財產權의 침해 우려 - 山林投資意慾 상실

- (1) 山林은 단순한 木材生產 기능에만 있지 않고 국토보전, 수자원 함양, 국민보건, 휴양, 정신, 문화, 정서등 公益기능이 다른 어떤 分野보다도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2) 그러므로 오늘날의 世界的인 山林經營의 추세는 木材生產 기능보다는 오히려 公益의 기능 면을 치중하여 政策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先進國들의 山林經營의 추세인 것입니다.
- (3) 따라서 山林은 個人財產이기 전에 國土保全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公益기능면 때문에 山林의 기본母法인 山林法을 비롯한 그 부수된 각종 規定들이 다른 어떤 私有財產에 가하는 규제 규정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理解하고 있는 것입니다.
- (4) 山林經營은 構造的으로 초장기성이고 저소득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출한 公益기능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산에 내가 심은 나무 한 그루라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벨 수 없다든지, 국립 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각종 보아림, 채종림등 法定 시업제한림으로 規制되어 私有財產權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서도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금 없이 우리는 理解와 사명감으로 인내하여 온 터입니다.

- (5) 이러한 狀況下에서 우리들 山主는 온갖 인고와 각고끝에 國土綠化事業에 獻身的으로 이바지 하여 왔으며, 바야흐로 이제부터는 林木資源 축적을 위한 資源造成에 남은 여력을 다 하고 있는 터입니다.
- (6) 이러한 時點에서 國土保全과 山林資源保護에 반하는 새로운 開發 위주의 石材產業法의 制定 으로 山主의 의사에 반하는 採石權을 認定함은 山林保護側面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山主의 사유재산권 侵害가 우려되며 재산권 행사가 설상가상으로 규제되는 것이고 山主와 채석권자 (임차권자)의 의사가 합일이 되지 않을 경우 分爭의 소지를 排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山主들의 山林造成 意慾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 岩石은 재생산 不可能한 유한자원

- (1) 山林안의 石材는 유한하고 한 번 採取하게 되면 山林破壞가 선행되고 再生產은 불가능한 것이며 毀損地 복구는 사방공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나 아무리 복구한다 하더라도 장구한 세월을 위하여 원형대로의 복구는 불가능한 것임을 고려할 때 資源의 開發 毀損에 앞서 保存 保護政策이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 (2) 石材는 資源임에는 틀림없으나 生活必須資源이 아니므로 開發을 서두르는 것 만이 能事が 아니고 가공기술의 발전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 (3) 그렇다고 폐협회가 資源保存의 옹고집 政策만을 고수하자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며 開發할 곳은 開發을 하되 현행 山林法 規定下에서도 얼마든지 開發가 可能하다고 보며 만약, 현행 제도에 모순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새로운 法을 만들어 새로운 問題點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山林法을 適切하게 보완 改定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 山林關係業務 관장 부서의 一元化

- (1) 山林안의 石材는 산림의 입목, 초류, 동물, 토양과 함께 山林을構成하는 기본 인자로 山林에서 分離할 수 없는 林產資源인 것입니다.
- (2) 石材가 資源임에는 틀림없으나 山林 그 自體가 資源아닌 것이 어디에 있으며 지표면에 표출되어 있는 것이나 지하 어디를 파더라도 岩石이 나오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 산주一同은 그 所管部署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닐듯 싶으나 現在에도 국립공원 및 조경관계는 건설부에서, 분묘지관계는 보사부에서 관장함으로써 相互 연계 정책이 원활이 이루워 지지 않을 때가 많아 不合理하고 非效率의인 政策으로 말미암아 불편과 불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우리들 山主이므로 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3) 현행 법상으로 보거나 산림안의 토석이 林產資源임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진대 山林과 불가분의 關係에 있는 石材에 관한 林產業務를 또다른 部署에서 관장하려 함은 더욱 모순을 가중시켜가는 처사이므로 山林內 石材 關係 業務는 山林行政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國土保全과 資源開發의 兩面性을 갖는 차원에서 和있게 다루어져 나가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 發展 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86 育林作業推進計劃

山林廳은 第 10 回 育林의 날을 맞이하여 汎國民的 育林作業 參與로 山林資源化와 快適한 國土景觀造成을 促進하기 위하여 11.1 ~ 11.7 (7 日間) 까지 育林週間으로 設定하고 汎國民育林 運動을 展開하기로 하였다.

育林의 날을 期하여 全國民的인 育林作業을 實施하되 形式的인 行事を 止揚하고 하루 종일 育林作業을 實施할 것이며 各自의 生活圈에서 自進參與하여 출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育林作業對象地 및 作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 育林作業 對象地

- 春期에 植樹한 記念 造林地
- 造林地中 '86 秋期 追肥計劃地
- '88 大會 關聯地域
- 國土公園化計劃에 의한 植樹地
- 農村經濟樹 植樹地域

- 作業內容

- 施肥作業
- 造林木의 檢木
- 雜木 속아내기
- 가지치기
- 造林木의 越冬保護

새로운 間伐法 (淘汰間伐)

가. 淘汰間伐의 意義

淘汰間伐法이란 目的林木 生育을 積極的으로 促進시키기 為하여 目的林木 生育에 障害가 되는 林木을 淘汰시키고 山林의 生態系를 維持 增進시키기 위한 林分撫育 伐採임.

나. 淘汰間伐의 特徵

- 優良한 林木을 競爭木과의 生育空間 및 營養水分 競合을 緩和시킴.
- 未來木을 選拔, 標識 管理하여 形質優良林木으로 育成함.

다. 淘汰間伐 對象 林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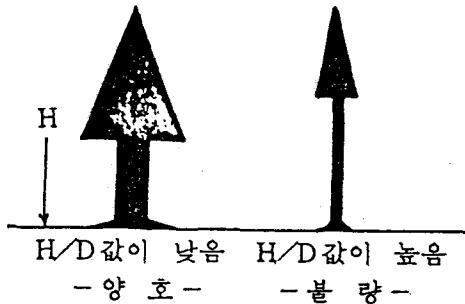
形質優良木을 育成하는데 特徵이 있으므로

- 林地의 地位가 “中”以上이고
- 林木의 生育이 良好하고
- 間伐實行前에 除伐 및豫備間伐 등이 實行되어 있는 林分을 對象으로 함.

(1) 針葉樹 林分의 경우

優勢木의 H/D 値가 100 以下인 林分으로서 最初 間伐을 主林木의 平均樹高가 約 6~10m 内外의 林分에서 實行함 (落葉松은 6~14m 内外)

$$\text{※ } H/D \text{ 值} = \frac{\text{樹高 (m)}}{\text{胸高直徑 (cm)}}$$



(2) 濕葉樹 林分의 경우 (포플러類 除外)

主林木의 平均樹高가 約 6~10m 内外의 林地에서 實行하며 大概 10~15年生 前後임.

[参考] 最初 淘汰間伐은 幼齡林 保育作業 完了後 大概 3~5年後의 林分임.

라. 淘汰間伐 實行要領

(1) 未來木

未來木이란 殘存保育하여 最終收穫期에 伐採하게 될 林木이며 收穫目標가 되는 林木임.

(2) 未來木의 要件

(가) 樹 種

針・闊葉樹林에서 모두 實行이 可能하고 混生林에서는 有用樹種을 優先 選拔하고 그 林地의 優占 樹種이어야 함.

(나) 生活力과 林地適應性

- 健全하고 生長이 旺盛할 것 (根部, 樹幹 및 樹冠).
- 被壓을 받지 않은 上層林木일 것 (暴木은 例外됨).

(다) 形 質

- 樹幹이 通直하고 分幹되지 않으며
- 病虫害 物理的인 被害가 없고
- 異常形狀 등이 없을 것

(라) 距離 및 間隔

- 未來木間의 距離는 最小 4m以上이며
- 未來木間의 距離, 間隔을 一定하게 維持할 必要는 없으며 林分全體로 보아 大體로 고루 配置됨이 理想的임.
- ha當 最大 400本 未滿이어야 함.

(3) 未來木의 選拔, 標識 및 가지치기, 管理

(가) 未來木의 選拔

- 未來木 要件에 該當하는 林木을 優先 選拔한다. 要件을 갖춘 林木이 密接되었을 때는 形質과 距離를勘案하여 1本만 未來木으로 남긴다.

(나) 未來木의 標識

- 未來木은 胸高部의 거친 樹皮를 벗기고 黃色페인트로 幅 10cm 정도의 띠 모양 標識을 한다. 樹皮를 벗길 때는 形成層을 損傷치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 未來木의 가지치기

- 未來木만 가지치기를 實行하며 樹液停止期인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實行한다.
- 가지치기 높이는 樹高의 1/3 ~ 2/5 程度로 하며 마른 가지는 全部 쳐준다.
- 가지치기 方法은 別添 要領과 같이 枝隆部를 損傷치 않도록 하되 반드시 실톱으로 使用한다.

※ 낫으로 가지치기를 絶對 禁止임.

- 注意事項 -闊葉樹(포플러類 例外)는 가지의 直徑이 5cm以上인 것은 傷處癒合이 어려우므로 切斷하여서는 아니됨.

(라) 未來木의 管理

- 伐採 및 產物의 下山作業, 其他 作業時 未來木을 損傷치 않도록 注意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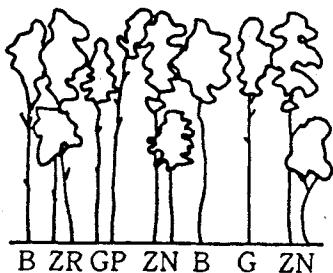
- 邻近類(翹, 머루, 다래, 담쟁이 등)는隨時로 除去하고 標識는 늘 鮮明하도록 再塗色하여야 함.
- 未來木이 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除去하고 優良 隣接木을 育成함.

(4) 間伐對象木

(가) 林木의 區分

林木은 그 形狀에 따라

- 未來木
- 壓迫木
- 희초리木
- 摩擦木
- 無害木(中庸木)
- 有用木으로 區分함.



Z 미래목
B 압박목(제거)
P 희초리목(“”)
R 마찰목(“”)
G 무해목(중용목)
N 유용목

(나) 除去對象木

- 未來木의 樹冠을 抑制하는 競爭木 - 壓迫木
- 樹冠이 過大하여 周圍林木生育에 被害를 주는 林木 - 暴木
- 희초리목, 마찰목, 被害木은 全部 除去
- 中庸木中에도 過密할 때에는 其中에서 不良木을 除去

※ 有用木은 林木保育 및 樹幹保護, 不定芽 發生抑制를 為하여 全部 殘存시킴.

※ 殘存林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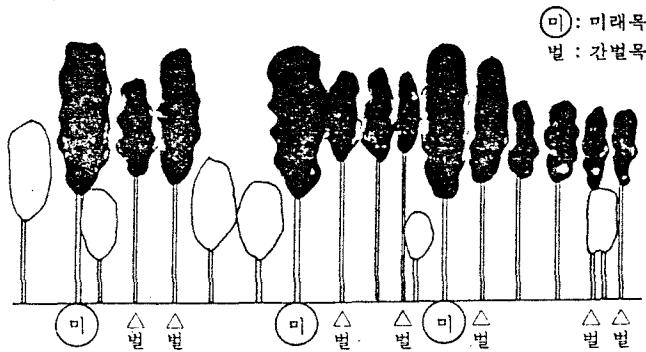
- 未來木
- 中庸木
- 有用木
- 下層植生

(5) 間伐實行法 例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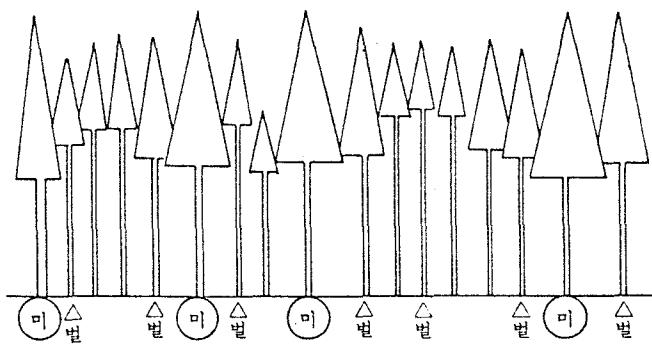
〈울폐림에서의 實行法〉

未來木生育에 支障이 되는 林木만 除去하되 潤葉樹 介在木은 保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生育을 促進시킴.

— 例 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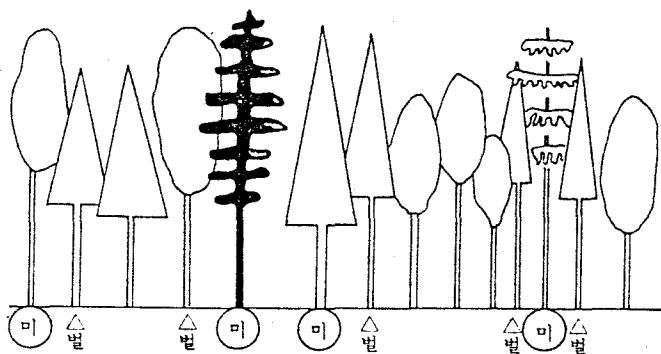


林冠疎開를 通하여 有用介在木의 活力を 增進시킴.



〈混生林에서의 實行法〉

混生林에서는 특히 未來木間의 距離를 一定하게 維持하기는 어려움.



마. 次期間伐 實行

最初間伐이 끝난 後 次期間伐의 時期는 大體로 4~5年(生長이 緩慢한 樹種은 5~10年)이 되나 大概 中庸木의 樹冠이 未來木을 抑壓하거나 競合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中庸木間의 樹冠競爭이 甚하게 되었을 때에 次期間伐을 實施하여 3次, 4次間伐도 이러한 原則에 따라 實施함.

※ 注意: 未來木은 最終收權期까지 남게 되며 未來木이 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이를 除去하여 未來木을 追加로 選定生立시킬 必要는 없다. 다만, 隣近 中庸木 中에서 優秀한 林木이 있을 때에는 代替할 수 있으며 未來木標識 要領에 따라 標識 및 管理함.

바. 作業實行 順序

(1) 豫定地 境界標識 및 測量

(2) 作業路 設置

• 作業路의 幅: 1~1.5m

• 作業路의 間隔

[垂直 作業路 - 30~50m
水平 " - 50~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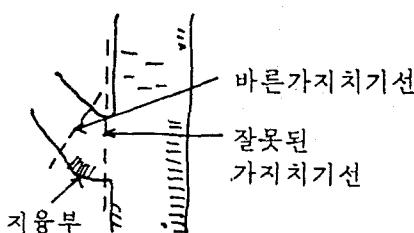
(3) 未來木 選拔 및 標識] 同時作業

(4) 間伐木 選定 및 標識]

(5) 間伐木의 伐木造材 및 下山

(6) 未來木의 가지치기

〈未來木 가지치기 例示圖〉



※ 지용부를 절단하지 않아야 함.

日本에 林業視察團 派遣

本會는 海外 林業 先進地 視察計劃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氣候風土가 類似한 日本 林業의 現況을 둘러보기 위하여 本會 韓榮錫 會長을 인솔단장으로한 會員 15名을 10.20 ~ 10.29 (10일간) 까지 派遣키로 하였다.

이번 視察로 日本 林業經營者 協會 (日本의 本會와 같은 協會) 와의 유대가 더욱 깊어질것을 確信하는데 이번 視察은 이 協會가 추천한 후꾸시마의 鈴木虎吉氏의 經營林, 會津오동나무 林地, 山形縣의 林業試驗場, 群馬縣의 森產業의 표고全天候施設 栽培, 京都 北山林業의 優秀林地등을 둘러볼 計劃인데 이번 視察로 새로운 林業의 技術習得과 幅闊은 見聞으로 좋은 成果가 期待된다.

〈日本 林業 視察團 名單〉

구 분	성 명	소유 산림 면적 ha	구 분	성 명	소유 산림 면적 ha
인솔단장(회장)	한 영 석	129	우수독립가	정기홍	130
총무간사(상무)	최동균		사업	김정태	40
모범독립가	김익로	967	임산업	박상옥	55
사업	박응섭	528	제주지부장	김병용	40
서해개발대표	권오진	2,538	변호사	문상익	500
자영독립가	김환조	70	임업장비생산	박호진	56
본회감사	이용호	649	목장경영	양근효	102
농장경영	진재량	74			

林業育林裝備 · 산불진화장비

有 備 物 產 (株)

代表理事 朴 浩 鎭

서울特別市 鐘路區 忠信洞 27-8

전 화 : 762-8588, 8589

- 篤林家班教育時建議事項 -

林業研修院은 지난 7.7 ~ 7.10 (3泊4日) 까지 篤林家 50名에 대한 特別教育을 實施한 바 있는데 이에 分任討議時 論議된 山林關係 建議事項을 山林廳長에 報告하고 本 會에도 다음과 같이 通報하여 왔다.

1. 篤林家의 山林施業의 自律化

- 篤林家들은 어려운 역경속에서 오늘의 山林을 이룬 사람들인 만큼 일정한 수준의 技術蓄積은 물론, 自己山林에 대하여서는 가장 잘 알고 있고 산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育林, 伐採등을 自意的으로 施業토록 방임하여도 政府에서 염려하듯 自己山林을 망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각종 산림사업에 있어 篤林家의 自律性을 최대한 保障해 주었으면 한다.
- 가령 間伐의 경우 시, 군 山林課와 山林組合에서는 책임관계상 販賣價值없는 不用木만을 선정해주고 收益間伐은 거의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 중간 수입에 의한 再投資를 위해서도 間伐量이나 對象木 결정등은 篤林家에게 일임해 줄것을 建의한다.

2. 山林災害補賞 및 산불 保險制度

- 造林을 끝낸 山主의 가장 큰 걱정은 그 山林을 어떻게 하면 산불, 病虫害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山林災害는 個人의 힘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私財에 의한 재복구도 지난하므로 被害가 發生할 경우 최소한 投資元金을 회수할 수 있도록 災害補償制度를 確立해 주기를 希望한다.
- 만약 災害補償制度의 實施가 어렵다면 政府와 山主가 一定額을 均分 負擔 (가령 3:7) 하여 火災保險등에 加入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3. 저렴하고 실용적인 山林作業 裝備 普及

- 대부분 篤林家의 山林은 造林段階를 지나 育林段階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育林 및 伐操作業에 必要한 도구, 기계를 구입해야 할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장릉 機械訓練院이나 林業研修院에서 소개되는 장비는 대부분 國內에서 購入할 수 없는 外國產 裝備가 많고 購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구입한다 하더라도 附屬品 交替 등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山主들이 實用的인 장비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현재 市販되고 있는 山林作業裝備는 어떤것이 있고, 그 使用方法은 어려하여,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 구입할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고, 장비의 국산화를 서둘러 보다 저렴한 價格으로 購入할 수 있도록 시책적인 관심을 가져줄것을 希望한다.

4. 林道路線 결정시 山主 의사를 최대한 반영

- 私有林 林道開設作業은 현재 山林組合에서 代行하고 있으나 山主 의사는 관계 없이 林道路線 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경비가 많이 드는 곡선 작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산길 소로와 접하지 못하거나 支線設置가 어려워 林道로서의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는 事例가 있으므로 특별한 理由가 없는한 산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줄것을 전의한다.
- 또한 山林組合에서는 林道開設作業을 일반 시공업자에게 하청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일반 施工業者에게 下請주는 것을 조건으로 篤林家에게 林道補助金을 直接 交付해 준다면 보다 效果 的인 林道建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밤價格 및 需給안정 對策 樹立

- 밤 生產量이 增大함에 따라 밤 價格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 밤 生產者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山主들이 안심하고 밤 生產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山林廳에서 밤 價格 및 需給에 관한 綜合 對策을 樹立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 밤 輸出 쿼터제는 나름대로 일정일단이 있겠지만 生產者들이 불만을 품는 것은 수집업자들의 농간과 價格조작이 심하고 納品機會가 공평하게 부여 되지 않는데 있다.
따라서 이 制度의 시행이 불가피 하다면 生產者 權益이 公正하게保障될 수 있도록 納品이나 수집 제도를 改善해 주기를 바란다.

6. 其他

- 林產物 價格動向 資料의 普及
- 育林作業費의 國庫補助擴大
- 施業制限林의 國家補償制 實施

< 會員名簿作成配付 >

本會는 지난 8.31. 을 기준하여 會員名簿를 作成, 全國會員에게 配付하였습니다.

現在까지 受領하지 못한 會員께서는 本會로 연락바랍니다.

林業界 消息

- 鄭採鎮 山林廳長은 부임후 民正黨 農林畜產分科 山林小委員, 政策諮詢委員, 林友會 會長團과 相見禮를 겸한 懇談會를 개최한데 이어 地方巡視日程에 나섰는데 지난 9.25 ~ 26에는 造林局長 鄭泰鳳氏등 關係官을 대동하고 本會 理事인 全南 康津 模範 篤林家인 金基運氏의 造林地도 視察하였다.
- '86 山林病害蟲 防除 研鑽會 開催 : 山林廳은 '86 山林病害蟲 防除 結果를 分析하고 '87 防除方案等을 討議하여 山林病害蟲의 效果의in 防除對策을 模索코자 '86.10.16 ~ 10.17까지 慶北道 林業試驗場에서 中央林業試驗場長등 관계관, 本廳 保護課長등 관계관, 各道 保護係長, 各道 林業試驗場長등이 모여 研鑽會를 開催할 豫定이다.
- 全國養苗技術 쎄미나 開催 : 韓國養苗協會 (會長 金命源)은 10.14 ~ 10.16까지 全南 光州에서 全國會員과 各道養苗係長, 營林署養苗關係官등 15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養苗技術 쎄미나 開催
- 林業機械 쎄미나 開催 : 山林廳은 10.13 ~ 10.15까지 강릉임업기계 훈련원에서 임업기계에 관한 쎄미나 開催
- 林友會員 林業視察 및 觀光 : 林友會는 10.7 ~ 10.9 (2泊3日)로 平昌의 私有林 協業經營園地를 비롯, 백암온천, 울진원자력 발전소, 양산 임업협업경영단지, 通度寺, 梵魚寺, 東來 太宗台등 觀光을 겸한 林業視察을 實施하였다.

計 音

- 山林廳 姜泰弘 次長 9.13 晉陽郡 集賢面 沙村鄉里에서 母親喪
- 林業試驗場 病蟲部長 高濟鎬 博士 9.22 宿患으로 別世

< 會費를 納入하신 분 > (9.11 ~ 10.10)

한 영 석 회장	1,000,000	배 정 섭	30,000
오 세 영 이사	200,000	정 회 윤	20,000
고 판 남 "	200,000	정 춘 현	20,000
이 훈 "	200,000	미 상 ?	20,000
임 동 펠 "	200,000	이 용 환	200,000 (경기지부장)

< 協會費 納入案內 >

- 計座番號 ○ 서 을 신 탁 은 행 : 19501-84009872
○ 농 협 중 앙 회 : 001-01-025926
○ 국 민 은 행 : 093-24-0025-624
○ 우 체 국 : 011809-0014780-12